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주일 】

세례식 김기석 목사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주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활의 빛에 이끌려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일들이 제 아무리 각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분주함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의 돌문을 굴려 주십시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근심의 수의를 벗겨주셔서 신명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사느라 지친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내려주십시오. 남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붙잡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7:18 인도자

♠ 교 독 문 62. 부활절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50. 무덤에 머물러 다함께

성경봉독 롬4 :17-25 한상의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죽어도 죽지 않는다 김기석 목사

| | |
|-------------------|-------------------------|
| 부활절 칸타타 | 성가대 |
| 헌신의 찬송 | 155. 주님께 영광 |
| 헌금봉헌 | 다함께 |
|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다함께 |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인도자 |
|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무덤 문은 열렸고, 지옥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다 함 께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참된 희망과 사랑은 결코 스러질 수 없음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미움과 갈등의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부활 소식 전하기 | 로마서 강해(73) |
|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 기도 : 문영혜 집사 |

| | | |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 김재흥 목사 한완식 장로 | 인도자 문영혜 집사 |

| | | | | | | | |
|-----------|------|-----|-----|-----|-----|-----|-----|
| 4월 | 영접위원 | 이용한 | 박창운 | 박규석 | 최숙화 | 노순옥 | 이증자 |
| | 헌금위원 | 한완식 | 김정길 | 김중수 | 조병주 | 김시영 | 김명순 |

베드로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양을 먹이라.” — 요한21:13-15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 예수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분은 재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독교 사역의 핵심으로 들어야 한다. 그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부족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감이 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라. 세상은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외면당했다. 권력과 효용성과 통제권을 추구하는 세상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러나 여기 그분이 계신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이 있는 소수의 친구들에게, 영화롭게 된 몸이 상처를 지닌 채 나타나셨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입은 이 예수님이 단순히 물으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리시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던 그분은 물을 질문도 하나뿐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너를 중요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이를 일이 얼마나 많으냐? 결과를 보일 수 있느냐?”가 아니다. 질문은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너는 성욕신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외로움과 절망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용서하시고 돌보시며 다가와 치유해 주시는 그 마음을 말이다. 그 마음에는 의혹과 복수와 원한과 미움이 조금도 없다. 그분의 마음은 오직 사랑을 주고 그 반응으로 사랑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이다. 깊이 아파

하는 마음이다. 인간의 처절한 고통을 보시기 때문이요 위안과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믿으려는 우리의 강한 저항을 보시기 때문이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통해 육신이—그것도 ‘육신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사랑이시라는 사실, 두려움과 소외와 절망이 인간 영혼에 침투하려 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성 있고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 아주 단순하고 심지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조건, 무제한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약해지고 싶다. 네 사랑이 필요하다. 네가 내 사랑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긍정적 반응을 바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인생은 그 반응을 보일 무수한 기회의 연속이다.

—헨리 나우웬, 『예수, 우리의 복음』

부활로부터 산다는 것

부활절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죽음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에 집중한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편이 더욱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을 극복했고, 그리스도는 최후의 적(고전15:26)인 죽음을 극복했다. 죽는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죽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범위 내의 일이요, 죽음의 극복은 부활을 의미한다. 죽는 법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새로운 청정한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온다. 여기에 “나의 설 자리를 달라. 그러면 세계를 움직여 보이리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있는 것이다. 만일 몇 사람이 이것을 정말 믿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지상의 행위가 움직여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부활로부터 산다는 것—그것이 부활절이다.

—다이트리히 본회퍼, 『옥중서간』 중에서

■ **마/음/으/로/위/는/글**

부활송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 황홀에 취해 있다.

(구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 | | | | |
| 원로목사 : 박정오 | 소속목사 : 한인철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 | | |
| 원로장로 : 방현복 | 김춘려 | 전영규 | 김성한 | | | | |
| 장 로 : 윤정덕 | 강인식 | 김철수 | 조병무 | 한완식 | 구성실 | 이용한 | 윤석철 |
| 성가대장 : 이용한 | 지휘 : 윤주원 | 반주 : 최윤선 | 안홍숙 | 한선희 | 김수진 | | |
| 관 리 인 : 노용래 | 운전기사 : 오진훈 |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 | |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방현복 윤정덕 구성실 이용한 오성희 한상의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오진훈 노순옥 이한림 김명희 조문규 진정숙 김정길
 최숙화 김순복 전영웅 김시영 윤수진 김윤수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윤 김지호 노용래 강인식 김정숙 김재흥 최희영 박재실
 박홍엽 염혜영 한지혜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문 문금석 김홍기 김명순 최윤희 정두리
 박범희 김남종 오복순 전영규 김경수 이정은 김종문 지명주 김미순
 송의섭 임 영 정경례 조동길 배부례 노미향 이증자

감사헌금:

김춘려 조항범 오현정 한상의 정영선 백혜성 이운화 이인섭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김순복 안종일 정현주 김규호 무명1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 음 장 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정 두 리 | 김 애 경 |
| 베들레헴 | 윤 정 덕 | 정 경 례 | 박 홍 엽 | 김 윤 수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정 복 순 | 이 소 순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문 영 혜 | 곽 혜 자 |
| 갈 릴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안 정 숙 | 조 병 주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홍 재 | 김 춘 려 | 김 순 복 |
| 시 은 | 박 효 선 | 허 정 윤 | 박 효 선 | 허 정 윤 |
| 엠 마 오 | 최 숙 화 | 권 미 정 | 이 갑 재 | 이 기 분 |
| 에 베 소 | 이 순 정 | 한 선 희 | 이 순 정 | 오 복 순 |
| 빌 립 보 | 최 종 원 | 이 형 숙 | 이 명 희 | 박 현 우 |
| 가 버 나 움 | 구 성 실 | 안 흥 숙 | 김 진 경 | 이 권 화 |
| 나 사 렛 | 백 혜 숙 | 정 옥 영 | 김 희 우 | 백 혜 숙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김 혜 린 | 안 경 숙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이 영 란 | 유 혜 경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조 항 미 | 최 영 혜 |
| 두 란 노 | 안 종 일 | 정 현 주 | 교 회 |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부활주일** :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부활하신 주님 덕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2. **아름다운 원로** : 4월 21일(수)부터 22일까지 남도 나들이를 떠나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월례회** : 공동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세례자** : 오늘 세례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동세례자 - 안 현(안길상/이형숙)
 유아세례자 - 안세현(안태상/이권화), 김수빈(김창원/정지은)
 하인경(하정석/이명희), 조혜린(조관행/홍선희)
5. **계삭회**: 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3일(화) 오전10시에 한남동교회에서 있습니다.
6. **신앙실천** : 오는 15일의 총선은 우리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일까 깊이 생각하시고 꼭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헌화 - 김주현 (첫돌)

*점심 - 김주현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